

베네수엘라 여행자를 위한 안내문

2019.02.06., 주베네수엘라대사관

I. 베네수엘라 치안 상황

1. 일반적 치안 상황

- 주재국의 전체적인 범죄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수도인 카라카스 도심지역 및 인근지역에 분포한 대규모 빈민가(barrio)에서 불법총기에 의한 강력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임.
- 특히, 강력범죄 빈발 지역으로서 카라카스 지역의 저소득층 거주밀집지역인 Petare, Catia 지역 및 Libertador 도로 주변 지역, Paraiso, Santa Monica, El valle 등이 위험지역임.
- 콜롬비아와의 국경지역(Zulia, Tachira, Barinas, Apure 등 4개 주)에서는 콜롬비아 반정부 게릴라 조직이 여전히 활동 중이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석방금을 노린 유괴 및 마약관련 범죄가 빈발함.
- 외교부는 최근 대규모 시위 등으로 치안 상황이 악화된 베네수엘라에 대해 2019.01.31.자 베네수엘라 전 지역 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에 준함)를 발령함.
- 주재국 범죄조직은 군과 경찰로부터 탈취한 무기로 무장을 해 웬만한 지방경찰을 압도하고 있으며,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경우 남은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두려워 해 범인검거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2. 범죄 통계

- 최근 베네수엘라의 살인율은 대거 해외 이주의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현지 시민단체인 '베네수엘라폭력감시단'(OVV)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인구 10만명 당 살인사건 발생률은 81.4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

II. 사건사고별 안전수칙

1. 예방을 위한 일반적 행동요령

- 강도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빈민 밀집 거주지역이나 베네수엘라 시내 구시가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일로 해당지역 이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동행자를 확보하고, 지인 등에게 행선지를 알려야 함.

* 야간에 혼자 거리를 거닐거나 주간에도 한적한 골목길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행위 삼가

-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 자제
- 차량이동시 최대한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피하고 대로를 이용

- 빈민가를 지나는 길은 삼가고, 주차시에도 유료 주차장 등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주차
- 타이어 펑크 등 차량 이상을 빌미로 주변에서 정차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차량을 세우지 말고 안전이 확보된 지역(주유소 등)으로 이동 후 확인함.
- 또한, 야간에 가벼운 접촉 사고발생 시에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 시비를 가려야 함(범인들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정차시키는 수법).
- 은행에서 대량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범죄의 목표가 될 확률이 높은 바, 동 행위를 절대적으로 자제하고 인터넷 뱅킹 등을 최대한 활용
- 택시 이용시는 가능한 콜택시 및 신원이 확인된 자의 택시를 이용함.
- 특히, 야간의 경우는 일반 택시 이용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이용을 할 경우는 동행과 함께 이용

2. 베네수엘라 입·출국 시 안전수칙

가. 입국 시 유의사항

- 최근 카라카스 국제공항 입국 시 우리국민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입국을 거부하거나 입국심사를 지연시키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함(동양인은 다량의 달러를 소지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
- 카라카스 국제공항 입국 시 유니폼을 착용한 공항직원들의 공모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류·귀중품·현금 등은 짐으로 탁송하지 말고 수화물로 운반해야 함.
- 베네수엘라 방문 시 신용카드 소지를 권고하며, 카드 복제사건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바, 사용 장소에 따라 주의가 필요함.
- 공항 내에서도 안내원을 사칭한 소매치기 등 강도를 조심해야 하며, 택시 이용 시 허가된 택시회사를 이용하고, 공항-시내간 버스 이용 시 강도 및 납치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음.
- 특히, 야간 도착 시 공항-시내 간 고속도로(인근에 빈민촌 산재)에서 석방금을 노린 납치사건이 수시 발생 중인 바, 가능한 주간에 입출국을 권고

○ 입국 시 금지 품목

- 무기, 마약, 고기류, 생야채, 과일, 그림, 식물, 약품 등은 관계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반입불가

○ 무관세 반입 가능 품목

- 주류 2리터, 담배 200개피, 향수 4병 허용

- 입국시 외환소지 한도액은 사전 신고시 10,000미불까지 소지 가능

○ 황열병(Yellow Fever) 예방접종

- 브라질을 경유하여 베네수엘라에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증명서를 휴대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제보건규약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입국 10일 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음.
- * 황열병 백신은 접종 후 10년간 유효하며, 국내에서는 국립의료원 등에서 동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출국시 유의사항

- 카라카스는 공항이 협소하고, 특히 미국 국적의 항공사 이용시 안전여행규정상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국행의 경우 출국 3시간 전, 여타지역행의 경우 출국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음 (3시간 전에서 5분만 늦어도 체크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
- 미국을 거쳐 한국에 가는 통과객인 경우에도 미국비자가 없으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한국에서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함.
- 출국 시 외환소지 한도액은 사전 신고 시 5,000미불까지 소지 가능함.

3. 여행객을 위한 상황별 행동요령

가. 부당한 체포 및 구금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름.
-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함.
- 그러나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재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진행되며, 재외공관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현지 사법당국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직접 해당사건을 담당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기억해야 함.
-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항 (b) :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 당국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을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함.
-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함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함.

-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함.
- 체포·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 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 영사와의 면담 시 관련 사실을 알려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함.

나. 교통사고

- 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음.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음.
-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에 주의
-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사진 촬영함.
- 장기 입원하게 될 경우, 국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고,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공관의 도움을 요청함.
- 사안이 위급하여 국내 가족이 즉시 현지로 와야 하는 경우,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 관련 협조를 구함.
-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해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함.
-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나라의 일반적인 법제도 및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현지 또는 통역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음.

다. 자연재해

-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본인의 소재지 및 여행 동행자의 정보를 남기고, 공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와야 함.
-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크게 진동이 오는 시간은 보통 1~2분 정도임. 성급하게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담벼락 등이 무너져 외상을 입을 수 있으니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자세를 낮추고 머리 등 신체 주요부위를 보호함.
- 지진 중에는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 이용 중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까운 층을 눌러 대피함.
- 태풍·호우시 큰 나무를 피하고, 고압선 가로등 등을 피해 감전의 위험을 줄임.

라. 대규모시위

- 반정부 시위가 있을 시 도로를 막거나 불을 질러 통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안전한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며 출국이 예정된 자는 평소보다 4~5시간 일찍 공항으로 출발하는 하는 것이 좋음.
- 시위대의 감정이 고조되어 무력충돌(총기난사, 폭력 등)로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긴급 출국하는 편이 좋으며, 당장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사콜센터 혹은 대사관에 여행자의 소재와 연락처를 상세히 알려 비상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마. 테러 및 폭발

- 총기에 의한 습격일 때는 자세를 낮추어 적당한 곳에 은신하고 경찰이나 경비요원의 대응사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폭발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바닥에 엎드려 신체를 보호해야 함.
- 엎드릴 때는 양팔과 팔꿈치를 갈비뼈에 붙여 폐·심장·가슴 등을 보호하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덮어 목 뒷덜미, 귀, 두개골을 보호해야함. 통상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폭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미리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동시에는 낮게 엎드린 자세로 이동함.
- 화학테러의 경우 눈물과 경련, 피부 화끈거림을 동반하거나 호흡곤란, 균형감각 상실 등의 증상 등이 나타나는데 이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멈춘 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야 함.
- 병원균이나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테러의 경우 호흡기, 피부상처, 음식물 복용 등을 통해 감염되고 전염병을 발생시킴.
-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복통, 설사, 인후염, 피부발진, 안구출혈,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남. 인근에 의심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손수건을 여러 겹으로 접어서 코와 입을 가린 채 신속히 현장에서 대피하고, 물과 비누로 노출된 피부를 조심스럽게 씻고 특이증상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함.
- 독가스 등 생화학 가스가 살포된 경우,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중지한 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속히 현장을 이탈해야 함.

4. 납치에 대비한 행동요령

가. 실제 납치

- 납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있으며, 범행시간은 5:00~8:00와 17:00~23:00 사이임.
- Express kidnap라고 하는 납치산업이 유행하고 있는데 보통 1-2만불의 몸값을 요구함.

나. 납치됐을 경우의 안전수칙

- 납치 당시 저항을 하지 않음.
- 진정해야 하며, 절망하지 않음(30분이 가장 두렵다고 함).
- 조용하게 물어보는 질문에만 대답함.
-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납치범들과 논쟁을 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보여주어야 함.
- 30분정도 경과 후, 납치범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화를 시도함. 그러나 제안을 하면 안 됨.
- 감금 장소로 오는 이동경로와 시간을 기억해 위치를 확인하려고 노력함.
- 몸에 통증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납치범에게 음식과 약을 요구함.
- 납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긴 기다림을 준비하고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함. 오랜 시간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틈틈이 몸을 움직임.
- 납치범들의 신분과 감금장소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잘 기억하고 관찰해둬.
-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시간개념과 정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함.
- 폭행을 당한다면, 머리에 손을 올리고 바닥에 눕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능하다면 총격에 대비해 침대 뒤로 숨는 것이 필요함.
- 풀려난다면 안전한 곳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함. 지인에게 전화를 걸고, 안전한 장소에 머물.

5. 공공장소 행동요령

- 정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지 말고 술에 취하여 언성을 높이거나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피함. 말다툼이나 대립 상황이 번지는 것을 유의함.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지 않고 낯선 이와 언쟁을 벌이지 않음.
- 지갑이나 외투를 옆자리에 두지 않고, 화장실에 갈 경우 소지품을 챙겨가도록 함. 부킹 등을 걸어오며 술을 산다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등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믿지 말고, 계산을 할 때 웨이터에게 지갑을 보여주지 말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앞에서 긁는지 확인을 함. 제일 늦게 나가거나 차를 기다리느라 거리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유의함.
- 차에 타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차주인이 누군지를 묻고 자신의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등 시비를 걸면 납치를 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함. 이 경우 식당 지배인을 부르고 혼자 자리를 뜨는 일을 피해야 함.

6. 거리에서의 안전수칙

가. 기본 원칙

-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을 미행하고 있다거나 공격하려고 한다는 예감이 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함.
- 강도를 만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예감이 들었으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함.
- 당신의 주위를 살펴보면서 걸어야만 함. 어떤 사람이 수상하다고 느낀다면 그에게서 멀리 떠나고, 방향을 정하여 그를 피해서 걸어야 함.
- 범죄인이 당신의 길을 앞지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행동 요령
- 길을 건너서 수상한 자의 행동을 관찰함.
- 수상한 자 역시 길을 건너다면, 당신을 공격할 가능성이 농후함.
- 수상한 자가 앞을 막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함. 만일 수상한 자가 길을 막는다면, 당신은 범행의 대상이 됨.
- 사람이 많은 곳, 경찰서 등으로 도피함.
- 만일 안전한 장소가 없다면, 방향을 바꾸어서 항상 수상한 자와 거리를 유지하도록 함.
- 만일, 범죄인이 당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면, 뒤를 돌아 방향을 바꾸어서 범죄인과 먼 거리를 유지하도록 함.
- 범죄인이 당신을 향해 빨리 다가오고 있다면, 사람들이나 경찰이나 가게들이 있는 안전한 장소로 뛰어감.
- 만일 보호가 될 만한 장소가 없다면, 우선, 달려가며 수상한 자를 살펴보면서 당신과 수상한 자간 거리를 확보함.

- 주위의 도움요청 방법 (무엇이라고 소리 칠 것인가?)
- "SOCORRO 소꼬로(사람 살려!)"
- "Fuego 푸에고(불이야!)"
- "Carlos"까를로스, "Juan"후안, "Jorge"호르헤, 남자의 이름을 불러서 범인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나. 준비자세

- 지갑과 별도로 안전띠를 목이나 허리에 걸어 주요 물품을 넣어 다님.
- 팔찌나 메달 등에 자신의 이름, 혈액형, 알레르기, 질병, 전화번호 등을 적어놓아 위급 상황 시에 대비함.
- 비상용 호루라기를 휴대함.

다. 안전 습관

- 외출시 화려한 복장을 피함. 또한 명품 시계나 보석류 또한 착용하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말고 항상 주위를 살핌.
- 꼭 필요한 돈만 소지하고 다니며 지갑은 안주머니에 넣음. 가방을 멘다면 몸 안쪽으로 위치시키고 신용카드는 필요할 때만 소지함. 돈을 한곳에 모두 보관하지 않음.
- 수상한 이들은 주로 17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들임. 무기를 숨기기 위해 주로 잠바나 양복 윗도리를 입고 다니며 양손에 아무것도 없음.
- 빠르고 정확한 걸음을 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길가 윈도우 등을 통해 주변을 파악함. 만일 누가 뒤를 쫓아오는 듯 하면 길을 건너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계속 쫓아온다면 군중이 많은 공공장소로 이동함.
-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이 확인됐다면 호루라기를 불어 주위의 이목을 끌도록 하든지 또는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주목시킴. 보통 사람들은 '도둑이야'라는 말보다 '불이야'라는 말에 더 집중하게 됨.
- 차량 통행과 반대방향으로 걷고, 가방은 항상 안쪽으로 메고 코너를 돌때 조심함.
- 항상 통행이 많은 도로로 이동하며 밝은 도로를 이용함. 위험지역으로 알려진 곳은 피하며 모르는 곳에서 지체하지 않음.
- 지인이나 친구들과 같이 움직이고 최소 2인 이상 움직이는 것을 추천함.
- 건물에서는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엘리베이터 탑승시 다른 남성과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 먼저 '몇층 가십니까' 또는 '몇시 입니까' 등 말을 붙이며 두 눈을 똑바로 바라봄. 범죄자들은 자신이 파악됐다고 느끼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망설이게 됨. 긴급 상황시에는 경보 버튼을 누르고 모든 층수의 버튼을 눌러 시간을 지체함.
- 모르는 사람이나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차량 탑승 호의를 거부하고, 부득이하게 탑승하게 될 경우 지인들에게 알리고 휴대전화로 차량을 사진 찍어 보냄.
- 모르는 사람이 차를 세워 길을 물어 볼 경우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수상한 기운이 감지되면 '모른다'고 대답하고 갈 길을 감.

- 모르는 사람이 당신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물건을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또는 옷에 무엇이 묻었다고 할 경우 일단 의심을 하고 대답하지 않음. 계속 대화를 시도할 경우 주위 사람에게 큰소리로 반갑게 아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대화에서 빠져나감.
- 누군가 당신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을 할 경우 상대하지 말고 갈 길을 가면 됨.
- 누군가 총을 발사하면 일단 진정하고 엎드리고, 총성이 내 주변 10미터 내에서 발생했으면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 안고 단단한 물체로 몸을 보호함. 만일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다면 쪼그린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 한 후 경찰이 도착하길 기다림.

7. 강도를 당할시 행동요령

가. 안전수칙

- 강도와 싸우거나 논쟁을 벌이지 말고 침착하게 자제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함.
- 자연스러운 것 이상으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일단 순순히 따르도록 함. 무기를 빼앗으려고 시도하지 말고 흥기 앞에서는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함.
- 강도를 당할 때 소리를 지르지 말고 강도의 두 눈을 응시하거나 소지품을 순순히 내어 주도록 함. 강도를 침착하게 다루어야 함.
- 모든 동작은 천천히 하여 야단법석을 떨거나 급작스러운 행동으로 당신이 강도를 공격하기 위해 무기를 꺼낸다고 의심하게 하지 않도록 유의함.
- 강도가 도망가면 재빨리 숨도록 함. 강도를 쫓아가지 말고 강도들이 항상 무리를 지어 행동한다는 점을 명심
- 주의 깊게 강도를 관찰하여 추후 신고를 할 때 강도를 잡을 때 유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함. 도망칠 때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사용하였는지, 번호판은 무엇이었는지, 종류, 색깔, 모델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해내도록 함.
- 공격하지 말고 흥기 앞에 다른 어떤 물리적 힘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나. 호텔에서 안전

- 누군가 방문을 두드릴 경우 무조건 열어 주지 않음. 신원확인 구멍으로 누구인지 확인한 후 신원확인을 하고 무슨 용건인지를 묻고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거나 수상한 자일 경우 바로 리셉션에 신고함. 방으로 전화를 걸어 방을 수리할 수리공이라고 한다면 리셉션에 전화하여 확인함.
- 옷장이나 서랍에 옷과 소지품을 정리하여 두고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함. 다른 사람이 옷장에서 가방을 꺼내어 사용할 수 없도록 잠가서 보관함. 노트북을 휴대한 가방이 있다면 되도록 보이는 곳에 두지 말고 잠가서 보관함.

- 현금, 여행자 수표, 신용카드 등을 방안에 숨겨두지 말고 금고에 보관함
- 아이들이 호텔에서 혼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고 늘 곁에 머물게 함. 아이들을 유괴, 납치할 수 있음.

8. 금전 거래 행동요령

가. 안전수칙

- 현금인출기를 이용시 사람이 많은 시간대를 가급적 피함. 가급적 이른 시간에 은행 내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함. 차에 오르기 전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지를 살피고, 거리에 나갈 때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선지로 향함.
- 신용카드를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를 항상 예의 주시하도록 함. 카드를 돌려받을 경우 당신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함. 가끔 당신이 사용하지 않은 내역이 나타날 경우 즉각 이를 신고하여 당신의 계좌에서 갇지 않아도 될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함.
-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용 내역을 확인함. 인출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중복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체크함. 동시에 시스템 상의 에러로 인한 중복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며, 체불로 인한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함.

나. 사례

○ 카드도난

- 강도들은 현금인출기 홈에 '레바논 속임수'라고 알려진 작은 실을 넣거나 자석테이프를 이용하여 카드를 걸리게 만듦. 카드 주인이 고장을 신고하려 하면 범인은 실을 간단히 잡아당겨 카드를 손에 넣음. 만약 당신이 자리를 뜨지 않는다면 자신들에게도 방금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유사한 카드를 쥐어 줌. 강도들은 당신이 거래를 끝내고 카드를 두고 가는지를 살폈다가 훔치기도 함.

○ 카드복제

- 담배 갑 크기의 스키머라고 불리는 작은 카드 복제 장치를 통해 카드를 긁게 되면 자석밴드에 기록된 정보가 복제되어 이를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아 정보를 입수, 다른 카드의 자석밴드에 입력함. 범죄자들은 이 카드를 넣어 카드 사용자가 카드를 넣을 때를 기다렸다 빼내거나 아예 카드 출입구 위에 이 복제기를 붙이기도 함.

○ 현금도난

- 현금을 찾을 때 돈을 세는 소리가 나는데 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금인출기에 다른 방해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얇은 판을 위에 붙여 현금을 붙게 하여 사용자가 기계 고장을 신고하려 가는 사이에 간단하게 돈을 가져감.

○ 비밀번호 절취

- 망원경으로 살피거나 옆에서 은행거래를 하는 척하며, 개인 비밀번호를 훔치거나 자판 위에 특수가루를 뿌려 사용자가 자판위에 누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절취해냄.